

# 2018.8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8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8.8.28	대전MBC 대회의실	7/11	7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함진호, 김경희, 이용원, 양흥모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제작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사업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9	6	-	-	15	-	15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3	2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9건	9건	7, 8월
보도	시사토론 프로그램 새로 선임된 자치단체장 시정 운영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시사토론 M” 대전, 세종, 충남 시도 지사와 교육감(7/1-8/12)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제작, 편성	7, 8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 “사실”에 근거하여 패널들 의견을 나누도록	“모든 것 연구소 ALL LAB” 잇현진 이 름, 여성독립운동가 삶(8/7),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삶, 신채호 이광수(8/14) 기록과 문헌에 의거 제작	8월
보도	뉴스 적극적으로 모바일 활용을	뉴스를 카카오 톡, 페이스북과 연동하여 제공하고 있음	8월
보도	대전MBC 공영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서 “여성, 인권, 비정규직” 등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고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배치하여 시청자들이 대전MBC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볼 수 있게 함	8월
보도	시사토론 프로그램 구성의 변화	“시사토론 M ”토론에 앞서 주제와 맞는 야외촬영 구성물(ENG)을 적절하게 삼입, 패널들 전문화	8월
교양	교양프로그램 내용에 맞는 자료화면 활용하길	“모든 것 연구소 ALL LAB” 잇현진 이 름, 여성독립운동가 삶(8/7),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삶, 신채호 이광수(8/14) 내용에 맞게 독립운동활동, 형무소 등 그들의 삶의 궤적을 확인하는 자료화면 활용	8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모든 것 연구소 올랩) 구성(CG활용) 패널의 다양화	모든 것 연구소 올랩 “6,70년대 대중가요”(8/28) 단국대 장수정 교수(여) 패널다양화	8월
보도	중앙뉴스를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뉴스데스크 “녹조 완화 위해 4대강보 개방 확대 검토··금강은?”(8/16), “금강 백제보 수질 다시 악화”(8/26) 등 지역관점에서 뉴스 송출	8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너무 많은 인터뷰보다 간결하면서도 주제를 강하게 살릴 수 있도록	시사플러스 “갯벌과 철새 자연이 보내는 경고”(8/13) 등 적절하게 인터뷰 활용 간결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	8월
----	--	--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8. 5. 01.~2019.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비고(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대전여성정치 네트워크	여성단체	18.05.01~ 19.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위원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8.05.01~ 19.04.30
위원	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사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8.05.01~ 19.04.30
위원	이용원	월간 토마토 편집인	(사)문화유산올림	문화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대전YMCA	소비자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김경희, 권부남, 정대식, 이용원, 김종남, 양흥모, 양선희 위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8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 정상적으로 남녀 앵커가 투입되어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시청하기 좋았다. 남녀 앵커 호흡도 좋아 조화를 이룬다, 한국수자원공사 비리 단독보도(8/21)와 같은 발빠른 취재 기사를 더욱 발굴하여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대전MBC 뉴스가 되길 바란다(송길현).	새로운 2MC(CO앵커)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전 MBC 뉴스의 혁신을 이뤄내겠다.			
교양	모든 것 연구소 올림(8/7)에서 “여성독립운동가”를 다루었다. 전체 독립운동 유공자 중 여성은 고작 2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데 잊혀진 여성 독립운동 역사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는 기획의도로 제작한 이날 방송은 유익하였다. 지역의 독립운동가 또한 38명 이상 활동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없어 무척 아쉬웠다.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단아한, 말머느리...” 같은 표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제작진이 한 번 살펴보길 바란다. 이 프로그램 초창기는 우리 지역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는데 최근 지역소재, 지역 이야기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김종남).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단아한, 말머느리...”과 같은 표현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표현의 범주에 든다고 판단된다. 아이템의 경우 가능하면 지역의 소재를 선택하지만 프로그램의 특성 상 지역에 한정된 아이템만으로는 제작이 힘든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 지역 소재 발굴에 더 힘써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겠다.	○		
교양	카툰 “플러스 친구”를 통해 대전MBC 뉴스를 확인하고 있다. 보도국 뉴스 이외에 대전MBC 자체제작 프로그램도 홍보를 하면 더욱 의미가 있겠다(정대식)	주신 의견 참고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	
교양	대전MBC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모든 것 연구소 올림, 건강플러스” 등 정규 프로그램 예고 PR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제작된 프로그램을 일반 시청자들이 많이 시청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정대식).	프로그램 PR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PR을 제작해 송출하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	
보도	시사토론 M 출연진을 살펴보니 대부분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다. 주제와 맞게 토론자를 섭외하겠지만 섭외 시 여성에 대해	주제와 이슈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	

	적절하게 안배를 해 주길 바란다(권부남).			
보도	대전MBC 제작 프로그램 중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청소년 관련 문제를 주제로 선정하여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길 바라본다(권부남).	아이템 풀제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문제와 교육 등 우리 사회의 내재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겠다.		
보도	지역의 것을 전세계에 알리는 "glocalization"이 필요한 시기이다. 카이스트는 작년에 처음 "시로봇축구"를 개최하고 난 후 올해 두 번째 개최하였다. 금년에는 세계 20여개국에 참여했다. 한국에서만 만든 오픈 소스를 공개하니 전 세계인이 더욱 많이 참여하였다. 리포터 시가등장했고 기사작성도 시가 하였다. 중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프로그램 스폰서를 제의하며 게임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하였다. 지역의 것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이다. 대전MBC가 이를 독점 중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역의 것을 세계에 알리는 소재를 발굴해 보자. 혁신도시로 나가기 위해 3T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Talent(인재), Technology(기술), Tolerance(관용)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연구단지에서 의미 있는 성과물이 배출되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신성철).	지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소재들 예를 들어 백제나 서해, 인삼 같은 것들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이나 뉴스 등을 꾸준히 개척해 나가겠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획뉴스, 아울러 로봇축구 중계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보도	"폭염에 녹조 창궐, 충청 식수원 비상" (8/20)의 뉴스를 방송하였다. 녹조예방으로 "수문을 개방하고 나서야 녹조가 개선됐거든요. 백제보의 지금 심각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수문을 개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라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인터뷰를 담았다. 전문가의 의견치고는 수문개방만을 지적한 것은 미약하다고 본다. 이 분야에 더욱 적합한 전문가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신성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 부분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취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	○	
보도	28일 아침에 기록적인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다. 유성구 전민동은 그야말로 난리였다. 아침 뉴스에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이런 재해는 속보성이 생명이다. 카메라 출동에 앞서 자막활용도 그 예이다. 갑작스런 자연재해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처할 필	국가 재난방송 기구인 KBS보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뉴스와 SNS를 통해 방송했지만 더 노력하겠다	○	

	요가 있다(양선희).			
보도	2018 청년의회(8/21) 뉴스가 전체 뉴스배열 끝에서 2번째 소개되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책들에 대한 나름 해법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는데 방송 후순위에 배치한 것은 아쉽다. 이날 나온 안건만 보더라도 “청년창업발전소, 청년주거마을” 등 재기발랄한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았다. 이런 사안은 방송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본다(양선희).	좀 더 발전적인 주제와 대안이 다뤄졌으면 뉴스가치로서 중요하게 다뤄졌겠지만 행사에 그쳐 유의미하게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만 청년 실업 등 청년층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물을 발굴하겠다		
보도	기초과학연구원 미화원이 폭염으로 입원했는데 비용부담을 미화원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8/2) 내용을 고발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보기 좋았다. 우리 지역 소외된 계층을 살펴보는 뉴스를 발굴하여 계속 보도해 주길 바란다(양선희).	새로운 대전MBC 출범 이후 노동, 환경, 인권의 경우 보도국 데스크들의 적극적인 발제에 의해 타사보다 압도적으로 자주 다뤄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꾸준히 견지해 나가겠다.	○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8/24)에서 “보문산 숲속의 열린 음악회”를 소개하였다.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료영상이라는 자막만 처리되었지 영상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출처까지 밝히는 것이 맞다고 본다(양선희).	자료영상은 대전MBC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영상 혹은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검토하도록 하겠다.	○	
보도	한화이글스의 선전으로 야구의 묘미를 느끼는 시청자가 되었다. 경기를 잘하면 잘하는 데로 못하면 못하는 데로 늘 관심을 갖게 된다. 아마 우리 지역 야구 팬들이라면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 울고 웃고 할 것이다. 시청자위원인 저도 한화이글스 경기를 빠짐 없이 시청한다. 대전MBC 뉴스에서 한화이글스 경기에 대한 보도를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 한화이글스 경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더불어 지속적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송길현)	매주 승부와 전력 분석을 다루는 리포트도 배치되지만 매주 화요일은 프로야구 이모저모를 다루는 [스포츠투데이] 등 풍부한 스포츠 뉴스가 NEW 대전MBC의 강점이다. 앞으로도 가을야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전MBC 하면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도록 이니셔티브를 잡고 계속 추진하겠다	○	
교양	모든 것 연구소 올랩 (8/21. K-POP의 시작, 대중가요)을 시청하였다.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앞에서 리포터의 작위적인 모션과 ‘아재들’, ‘아몰랑’ 등의 자막은 재미있지도 않고, 어쩐지 애쓰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재미를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모든 시청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편집이 되도록 고민하겠다.	○	

	<p>느낌이라서 진부한 느낌이었다.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게 개그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은 좋지만, ‘재 왜저래?’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자연스러우면 더 보기 좋을 것 같다. 리포터가 박물관에서 원통형 실린더를 관람하는 장면, 오빠는 풍각쟁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이 나온 후 패널의 설명이 이어져 이해가 쉽고 재미있었다. 마치 전시관에서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는 느낌으로 호사를 누리는 기분이었다. ‘오빠는 풍각쟁이’ 노래는 좀 더 크고 길게 감상하고 싶었는데 배경음 정도로 작고 짧게 나와서 아쉬웠지만 패널 중 장유정 교수가 사의찬미를 부르는 장면은 황홀할 정도로 좋았다(김은주).</p>				
<p><b>교양</b></p>	<p>시사플러스 (8/ 6. 모든 길은 세종시로 통한다?)에서 세종시 문제를 다루었다. 세종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노선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주민과 도로공사측의 입장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잘 전달되었다. 그리고 도로공사측에서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노선에 수정을 가할 수 있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그것이 인터뷰에서 드러난 게 인상적이었다. 방송이 어떤 쟁점사안에 대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해결의 물꼬를 틀 수 도 있다고 생각되었고, 그게 지방방송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니, 보면서 흐뭇한 기분이었다(김은주).</p>	<p>평가에 감사드린다.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사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